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中企에 에너지 관리전문가 무료 파견	교토
사회·복지	3	공유경제 관련 세대간 유대 강화 등 2가지 제안	파리
	6	'새 이웃 개발하기' 프로젝트 거점공간 4곳 추가	베를린
	8	지역보건소, '정신질환 대응' 모바일 앱 개발	자카르타
행재정·교육	10	공공병원 응급실 폭력행위 줄이는 디자인 프로그램	런던
	13	'2050년 보르도' 인터넷 플랫폼 개설해 시민의견 수렴	보르도
환경·안전	15	세계적 추세에 맞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추진	캐나다
	18	"지진 발생 동시에 재해본부 설치...대책 신속 수립"	오사카
도시교통	20	올 9~12월 중 무인 전기택시 시민 대상 서비스	리옹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런던	오도영
암스테르담	장한빛	버밍엄	정기성
베를린	신희완	피렌체	김예름
	유진경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도쿄	박재호
뉴욕	윤규근		이용원
	이수진	오사카	권용수
	이정근	베이징	박성은
	정수지	상하이	문혜정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에드먼턴	장지훈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토론토	고한나
시애틀	강민규		김용훈
시카고	김영준	보르도	김준광
스톡홀름	문선우	파리	배세진
	허윤희	시드니	정용문
바르셀로나	진광선		

中企에 에너지 관리전문가 무료 파견

‘에너지절약 플랫폼사업’… 계획수립 등 단계마다 구체적 지원

일본 교토市 / 산업·경제

- 일본 교토市는 중소기업에 에너지 관리전문가를 무료로 파견해 에너지절약계획의 준비부터 실행과 검증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상담 지역플랫폼사업’(省エネルギー 相談地域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을 올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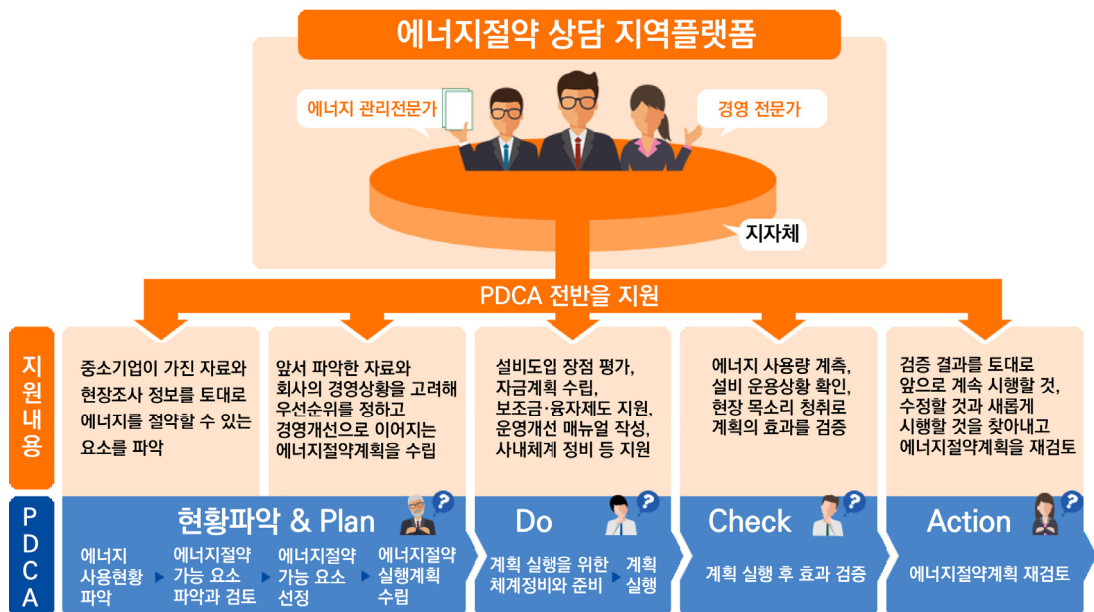
- 개요

- 교토시는 중소기업에 에너지절약·절전 관련설비와 에너지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절약 지원정책을 시행 중
 - 하지만, 중소기업은 에너지절약에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에너지 절약의 구체적·효율적 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고민이 있음
- 이에 따라, 시정부는 요청하는 중소기업에 에너지 관리전문가를 무료로 파견하는 ‘에너지절약 상담 지역플랫폼사업’을 시작
 - 파견된 전문가는 에너지 사용현황을 진단하고 절약계획을 제안하며, 계획의 실행·검증·재검토 단계마다 구체적 지원을 제공
 - 일반사단법인 ‘에너지 절약 플랫폼협회’와 협력하여 추진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은 교토 시내에 사업소를 가진 중소기업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도 대상
- 대상 중소기업이나 법인 등에 에너지 관리전문가를 계속해 무료로 파견
- 파견된 전문가는 에너지 사용현황 파악부터 계획수립(Plan), 실행(Do), 효과 검증(Check), 재검토(Action)까지의 모든 단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 현황파악: 중소기업의 기존 자료와 현장 조사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
 - Plan: 위에서 파악한 자료와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영개선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

- Do: 설비도입의 장점 평가, 자금계획 수립, 보조금·용자제도 활용 지원, 운용개선 매뉴얼 작성, 사내체계 정비 등의 지원 실행
 - Check: 계획 실행 후 효과를 파악·평가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계측, 설비 운전상황 확인,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을 진행
 - Action: 효과 검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계속하여 시행할 것, 수정할 것, 새롭게 실행할 것을 찾아내고 절약계획을 재검토
- 사업 기간
 - 2018년 6월 22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그림 1] 에너지절약 상담 지역플랫폼 개요

<http://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238697.html>

http://www.city.kyoto.lg.jp/kankyo/cmsfiles/contents/0000238/238697/KH_PLAT_081F.pdf

https://www.shoene-portal.jp/about_p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사회·복지

공유경제 관련 세대간 유대 강화 등 2가지 제안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 ‘미래세대회의’(CGF: Conseil des Generations Futures)는 공유경제, 청년, 함께 사는 파리를 목표로 한 성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시정부와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기구이며, 최근 공유경제와 관련해 세대 간 유대 강화와 장애인 사회통합 촉진을 목표로 한 2가지 제안을 시정부에 함
- 배경: 미래세대회의
 -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가 자신의 시정철학(사회적 연대, 시민참여, 환경 등) 구현을 목표로 직접 설치하고 지원하는 회의기구
 - 파리시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로 시민사회를 대표하며, 남녀 동수로 구성
 - 전문가, 일반시민, 경제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대표자,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
 - 다음 3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성찰과 제안을 시정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제공
 - 1) 공유경제: 파리시 경제를 사회적 배제가 없고 약탈경제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경제로 만들기 위해 협동적 경제 모델을 촉진
 - 2) 청년 파리: 청년에게 필요한 물리적·정서적 공간을 제공해 이들이 미래의 파리시민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
 - 3) 함께 사는 파리: 다양한 문화적·세대적·사회적(인종, 성, 장애 등) 교차 속에서 인간적 교류를 촉진하고, 모두가 파리시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총 164명의 위원이 7개의 하위 위원회를 구성
 - 7개의 하위 위원회는 기업 위원회, 노동자 위원회, 시민단체 위원회, 공공 서비스 위원회, 전문가 위원회, 지역민주주의 위원회, 파리시민 위원회
 - 1년에 3차례 모여 파리시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
 - 온라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파리시장, 시의회 산하 정책그룹, 파리시 매개관(mediateur) 등에 직접 의견을 전달

- 주요 사례

- 2018년 7월 2일 미래세대회의는 세 가지 주요 성찰 주제 중 첫 번째 주제인 공유경제 관련 2가지 제안을 함
- 1) 세대 간 유대 강화: 파리 에메로드 레스토랑(Restaurants Emeraude de Paris)에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식사하면 식사비용을 지원
 - 에메로드 레스토랑은 시의 지원을 받아 노인·장애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개인 레스토랑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세대적으로 고립된 노년층 모두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상호부조를 장려하며 이웃 간에 ‘함께 살아감’ 정신을 높여 세대 간 유대를 형성시킬 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음
- 2) 장애인의 사회통합 촉진: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 시민의 시선을 바꾸는 활동
 - 비장애인 시민이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친숙해질 수 있는 캠페인 진행
 - 비장애인 청년과 장애인 청년이 서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교환하며 가르쳐주는 행사를 학교·도서관 등의 공공기관 중심으로 개최
 - 장애인이 더 쉽게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최종적으로는 장애인이 공유경제 안에서 한 명의 당당한 경제적 주체이자 시민으로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



[그림 1] 파리 미래세대회의의 모습

- 참고사항: 파리 에르로드 레스토랑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노동을 할 수 없는 시민(노인과 장애인 등)이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 파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파리시민 중 60세 이하 장애인, 60~65세의 노인 중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 수입 이하의 사람이 대상
 - 정식 체류증을 가진 외국인 시민도 자격 대상에 포함
 - 민간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파리가 식사비용을 지원해 운영
 - 시내 모든 에르로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며,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것은 점심과 저녁 모두 가능
 - 미래세대회의는 이 에르로드 레스토랑을 활용하는 정책에 많은 관심
- 시사점
 - 청년층과 노인층을 구분하지 않고 두 계층을 결합해 지원하는 복지정책 사례
 - 최근 노인과 청년이 함께 주거하면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정책(한지붕 세대공감)도 이와 유사한 사례
 - 이를 파리시처럼 식사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https://www.paris.fr/services-et-infos-pratiques/aides-et-demarches/aides-allocations-et-subventions/aides-a-la-restauration-3847>

<https://www.paris.fr/conseil-generations-futures>

<https://www.paris.fr/actualites/conseil-des-generations-futures-des-propositions-pour-favoriser-le-vivre-ensemble-dans-la-capitale-6001>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새 이웃 개발하기’ 프로젝트 거점공간 4곳 추가

독일 베를린市 / 사회·복지

- 독일 베를린市는 최근 수년간 유입된 많은 난민이 베를린에 오래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과 기존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돕는 프로그램 ‘베를린 새 이웃 개발하기’(BEEN: Berlin Entwickelt Neue Nachbarschaften)를 시행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거점공간을 주요 난민 거주지 주변에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7월에 4곳의 공간을 추가
- 배경
 - 베를린에 유입된 많은 난민을 사회에 통합시킬 필요에 따라 시작된 프로젝트
 - 많은 이민자와 난민이 베를린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은 장기적으로 베를린에 체류할 것으로 예측
 - 대규모 난민 거주지가 있는 지역에는 기존의 이웃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웃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과 갈등 요소가 병존
 - 단순히 난민을 체류시키는 단계를 넘어, 이웃 간의 대화를 끌어내고 공동체 활동을 장려해 난민을 사회에 통합시킬 목적으로 BEEN 프로그램을 도입
- 주요 내용
 - 2017~2018년에 걸쳐 베를린 전역의 대규모 난민 거주지 주변에 총 20곳의 프로그램 거점공간을 마련할 계획
 - 올 초에 3곳을 성공적으로 열었으며, 7월에 추가로 4곳에 거점공간을 마련
 - 세부 전략 목표로는 이웃공동체 강화, 시민참여 활성화, 네트워킹 증진, 난민 삶의 활성화와 지원의 4개를 설정
 - 이웃공동체 강화: 난민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안정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만남과 토론의 장 마련
 - 시민참여 활성화: 난민을 받아들이고 사회에 통합시키는 핵심 주체인 난민 관련 시민단체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세부 목표로 난민이 기존의 이주민위원회나 관련 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네트워킹·협력 증진: 개인·기관·행정당국의 네트워킹을 활용해 정보교류, 노하우 축적, 아이디어 확보, 공동 프로젝트 개발 등을 도모

-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강화하는 동시에 난민의 지역 사회 참여 방안을 모색
- o 난민 삶의 활성화와 지원: 난민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난민에게 삶의 개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난민이 자신의 관심사와 지식·능력 등을 바탕으로 직접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하도록 도움
- BEEN 프로그램 참여 주체
 - o BENN 프로그램 팀 직원을 현장에 배치해 이웃공동체 활동을 지원
 - 주민참여의 개념을 알려주고, 이웃 간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이웃공동체 활동의 기본계획을 제시하며, 구체적 행동 목표와 전략 등을 수립
 - o 이웃포럼: 성별, 이주 배경, 소속 환경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 대표자를 모음
 - 난민 거주지의 주민뿐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도 참석
 - o 거주자 위원회: 난민 거주지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 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난민이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
 - o 이외에도 주민 네트워크와 시민단체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행사, 지역 매니저와 지역 코디네이터 등의 행정 주체를 위한 정기 모임 등 개최
- 마르잔노트 지구(Marzahn-Nord)의 BEEN 프로그램 사례
 - o BENN 마르잔노트는 마르잔 헬러스도르프(Marzahn-Hellersdorf) 구(區)에 있으며, 2017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
 - o 상담, 교육, 스포츠, 공공공간의 4개 부문 위주로 프로그램을 제공
 - o 올 7월에는 난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상담, 실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 창작 활동 워크숍 등을 제공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staedtebau/foerderprogramme/benn/download/Karte_BENN_Standorte_2018.pdf

<https://www.kosmosviertel.de/kosmosviertel/>

https://www.kosmosviertel.de/fileadmin/user_upload/2018/Dokumente/07_08_Was_ist_los.pdf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staedtebau/foerderprogramme/benn/de/programm.shtml>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staedtebau/foerderprogramme/benn/download/Informationen_BENN.pdf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staedtebau/foerderprogramme/benn/index.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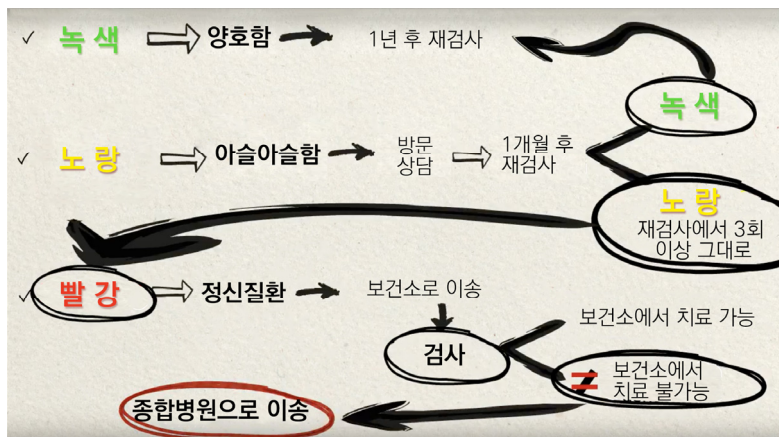
홍남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지역보건소, ‘정신질환 대응’ 모바일 앱 개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 사회·복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남자카르타市 칠란닥(Cilandak)區 보건소는 정신건강 관련 문제로 보건소를 찾는 주민이 많아지자, 보건의로 담당공무원이 지역사회를 직접 방문해 주민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정신질환자를 관련 서비스에 연계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 배경
 - 칠란닥구 보건소는 찾아오는 환자가 2016~2017년 25% 급증했고,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의나 요구도 많아지고 있음
 - 정신질환 발병도 꾸준히 증가하지만, 구 단위 보건소인 푸스케스마스(puskesmas)에서는 환자 자신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 한 조기 발견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주요 내용
 - 늘어나는 정신건강 관련 문의에 쉽게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빠르게 찾아내 관련 서비스에 연계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앱 ‘e-jiwa’를 개발
 - jiwa는 인도네시아어로 정신(soul)을 의미
 - e-jiwa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주민 요구에 의료보건 공무원이 빠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의료보건 담당 공무원은 e-jiwa를 이용해 조기에 발견된 정신질환의 진행 상황을 추적 가능
 - 특히, 보건소에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정신질환 검사를 할 수 있게 됨
 - 주민의 정신건강 상태를 녹색, 노랑, 빨강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 녹색은 ‘양호함’을 뜻하며, 녹색으로 분류된 주민은 1년마다 재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 녹색으로 남게 됨
 - 노랑은 ‘아슬아슬함’을 뜻하며, 보건소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해당 주민과 상담을 하고, 1개월 후 재방문하여 이상이 없으면 녹색으로 재분류
 - 연달아 세 번 이상 노랑으로 판별될 때는 빨강으로 재분류
 - 빨강은 ‘정신질환’을 의미하며, 보건소 직원이 e-jiwa 앱상에서 직접 정신질환자로 등록하고 추가로 신체·정신건강 상태를 심층검사

- 빨강으로 분류된 주민을 보건소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종합병원으로 이송 조치
-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기존에 제공하는 의료보건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부문 간 통합 지원을 수행하고 관련 인력을 투입
 - 주정부가 주민의 복잡한 건강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KPLDH(Tap Doors Services with Heart) 프로그램 팀의 데이터 수집, 예방, 치료, 재활 기능과 연계
- 해당 팀은 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구성
 - 노인층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시하는 시민참여 형태의 중앙정부 프로그램 포스빈두(Posbindu) PTM과도 연계
- e-jiwa는 현재 칠란다구 남간다리아(Gandaria)동(洞)에서 시범사업 중



[그림 1] e-jiwa 주민 정신건강 상태 분류 개념도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07/16/puskesmas-cilandak-bikin-terobosan-ciptakan-aplikasi-e-jiwa>

<http://smartcity.jakarta.go.id/blog/117/ketuk-pintu-layani-dengan-hati-kpldh-program-baru-dinas-kesehatan-provinsi-dki-jakarta>

<http://dinkes.inhukab.go.id/?p=3137>

<https://www.youtube.com/watch?v=iCSabJ5q0Q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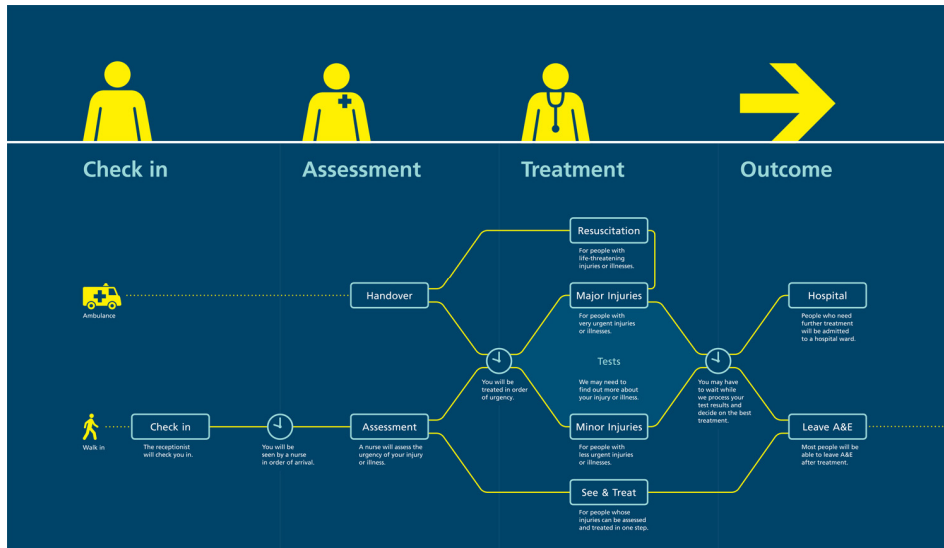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행재정·교육

공공병원 응급실 폭력행위 줄이는 디자인 프로그램

영국 런던市 / 행재정·교육

- 영국 런던市는 공공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폭언 등 공격성 사건이 응급실 내부 디자인이나 직원의 태도 등과 연관이 있음을 인지하고, 환자가 응급실의 상황과 앞으로의 진료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디자인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실행하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A Better A&E’를 시행한 결과 응급실 내 공격성 사건이 50% 낮아짐
- 배경
 - 영국 공공병원 응급실에서 공격성 사건이 매년 59,000여 건 이상 발생
 - 영국은 국민건강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공공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시간이 길어 시민 불만이 있음
 -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느낌, 불편한 조명과 분위기, 비위생, 직원의 여유로움과 농담에 따른 감정적 오해 등이 응급실 환자의 분노와 좌절감을 유발
 - 응급실 내 폭력을 디자인에 변화를 줌으로써 줄여보는 ‘A Better A&E’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계획
 -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지원하고 디자인 위원회(Design Council)와 민간 디자인 스튜디오 피어슨로이드(PearsonLloyd)가 협력
 - 런던 공공병원인 사우스햄튼 제너럴 병원(Southampton General Hospital)과 세인트 조지 병원(St George’s Hospital)서 우선 시행
- 주요 내용
 - 크게 환자 안내(Guidance Solution), 직원 대응(People Solution), 디자인 도구(Toolkit)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
 - 환자 안내: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자인 솔루션
 - 접수(Check in), 평가(Assessment), 치료(Treatment), 결과(Outcome)의 4단계로 구성된 프로세스 지도를 소책자 형태로 제공



[그림 1] A Better A&E 진행과정 안내도

- 응급실 지도를 벽에 부착하고, 공간별 역할과 치료과정을 나타낸 디자인 패널을 적합한 장소에 부착
- 대기실에 실시간 상황 안내 모니터를 비치해 응급실 혼잡도, 치료 단계별 환자 현황, 응급 정도에 따른 대기시간 등을 안내
- 스마트폰 앱으로 주변 지역의 응급센터 위치와 혼잡정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환자가 효과적으로 응급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 직원 대응: 응급실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성·좌절감·분노 등을 표출하는 환자의 대응 방안을 향상하는 교육 프로그램 시행
 - 응급실 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가 8주간 그룹 프로그램을 진행해 폭력성향 환자 대응법, 정기적인 의견 나눔과 토론,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돕는 컨설팅을 제공
- 디자인 도구: 디자인 권장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
 - NHS 매니저, 의료진, 헬스케어 플래너 등 모든 관련 부서에서 의료서비스 향상을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
 - 건축가와 실내 디자이너가 의료시설을 디자인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

－ 효과

- 런던 내 2개 공공병원에서 시행한 결과, 응급실 내 물리적 공격 상황 발생 빈도가 50% 낮아짐

- 고품과 공격적 언행 건수가 25% 감소했으며, 모욕적 언사와 욕설 건수도 23% 감소
- 디자인 서비스를 경험한 환자의 75%는 대기시간 관련 불만이 줄었고, 78%는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고 답변
- 디자인 투자 비용 1파운드(1,400원)당 응급실 폭력으로 발생하는 비용 3파운드(4,2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 이 프로젝트는 경험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응급실 내 폭력을 줄이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하며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성공적인 공공디자인 사례로 평가

<http://www.abetteraande.com/#implementation>

<http://pearsonlloyd.com/a-better-aande/>

<https://www.creativereview.co.uk/a-better-ae/>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2050년 보르도’ 인터넷 플랫폼 개설해 시민의견 수렴

프랑스 보르도市 / 행정·교육

- 프랑스 보르도市는 시민이 자유롭게 2050년의 도시 모습을 상상해보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모든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검토해보고 도시 계획에 반영하는 BM2050(Bordeaux Métropole en 2050)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현재 인터넷 플랫폼을 개설해 시민의견을 수렴 중

- 개요

- 가까운 연도의 미래를 특정해 미래도시의 모습을 상상하는 이벤트는 보르도市 도시계획정책의 특징 중 하나
 - 시민의 의견은 물론 건축가나 도시설계가 등 전문가 자문도 청취
 - 이전에도 ‘보르도 2033’, ‘보르도 2025’ 등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도시건축분야가 주된 주제
 - 이번 이벤트는 도시건축뿐 아니라 도시의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 관한 의견교환과 토론의 장을 연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별화

- 내용

-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며 여러 주제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광범위한 브레인스토밍
 - 2050년 우리의 주거방식은? 이동수단은? 일하는 모습은? 의료문제는? 교육은? 음식문화는? 등이 주요 주제
- 2018년 2월 27일 출범해 2019년 3월까지 단계별 시행
- 1단계는 설문조사로 2018년 6월 말까지 진행
 - 일반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시행
- 2단계는 일명 ‘진지한 게임’ 단계로, 2018년 7~9월 진행
 - 다양한 신분의 참여자로부터 분야별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수집
 - 온라인 참여 게시판에 글과 첨부파일(10Mb 이하)을 올리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프로젝트 내용을 하나씩 모두 검토
 - 오프라인에서는 ‘미래 트럭’(Le camion du futur)이 시내 곳곳을 다니며 길거리 아이디어 캐스팅에 나섬. 트럭의 출현 장소는 미리 홈페이지에 공개

- 9월 27일 보르도시장 알랭쥬베와의 토론 개최
 - 설문 참여자 중 채택된 시민들과 시장 간의 토론장 마련
- 2018년 10~12월 프로젝트 하우스 'la Maison BM2050' 오픈
 - 관련 아틀리에나 공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공간 마련
- 2019년 1~3월 대단원의 막을 내릴 콘퍼런스 개최
 - 지난 일 년간 축적한 의견과 아이디어와 지식 등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2050년 보르도시의 미래 모습을 분야별로 그려보는 마지막 단계
 - 내년 3월 전시·발표 행사를 열고 채택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공개
- 도시 생활에 연관된 모든 분야를 주제로 다룸
 - 2050년의 자동차 교통은? 카셰어링, 자율주행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무엇이 미래 교통의 중요한 조건인가?
 - 미래의 도시계획은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 지속가능한 개발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2050년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 의의

-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은 서울시도 많이 활용하는 방식
- BM2050의 차이점은 가까운 미래를 특정한다는 점과 광범위한 영역에서 1년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 2가지
 - 특정한 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도시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볼 기회 제공
 - 분야를 제한하지 않아 다양한 영역의 주제를 다루며, 제안을 긴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프로젝트

<http://www.bordeaux.fr/p131254/bordeaux-metropole-2050>

<https://www.bm2050.fr>

<https://www.20minutes.fr/bordeaux/2141387-20171013-villes-futur-quoi-ressemblera-bordeaux-2050>

<http://www.bordeaux-metropole.fr/>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환경·안전

세계적 추세에 맞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추진

캐나다 / 환경·안전

- 세계적 플라스틱 빨대 규제 움직임에 따라 캐나다는 총리와 집권당 차원에서 법령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고 있음. 또한, 밴쿠버나 토론토 등의 도시정부도 빨대를 비롯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법안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에드먼턴과 캘거리 등은 도시 간 경쟁 캠페인과 요식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플라스틱 빨대 규제 분위기를 형성 중
- 배경
 - 세계적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 추진 흐름
 - 2015년, 해양학자들이 발견한 바다거북의 콧구멍에서 빨대를 뽑아내는 영상이 화제가 되자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오염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이슈화됨
 - 미국 매체 퀴츠(Quartz)는 빨대가 매일 사용하는 가장 일상적인 물건이라는 점과 없어도 충분한 물건이라는 점에서 쉽게 퇴출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 5월 28일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빨대, 그릇, 면봉, 풍선 막대 등에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영국에서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경쟁적으로 종이 빨대 시험 사용 방침을 각각 2018년 3월과 5월에 발표
 - 뉴욕시의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나 금속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
 - 캐나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흐름
 -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를 지지한다고 표명했지만, 아직 금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음
 - 하지만 국제협력을 전제로 한 더 종합적인 해양오염 논의를 계획 중
 - 올 6월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기를 시도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도 올 연말에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법안 상정 예정
 - 자유당 정부는 이미 목욕·바디용품의 미세플라스틱 생산과 사용금지를 결정
 - 캐나다의 하루 빨대 소비량은 5천 7백만 개(인구 3,629만 명)로 추산

- 캐나다 주요 도시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 움직임
 - 밴쿠버,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를 선언한 캐나다 최초의 도시
 - 올 5월 발의한 쓰레기 감소 법안에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를 포함했으며, 2019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폴리에틸렌 폼을 사용한 컵과 용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비닐봉투와 일회용컵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법과 함께 시행할 계획
 - 불법 투기·생산자에게 250캐나다달러(21만 5천 원) 상당의 벌금 부과 예정
 - 2040년에 일체의 일회용품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표
 - 밴쿠버시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일평균 260만 개이며, 플라스틱 일회용품 수거에 연간 250만 캐나다달러(21억 5천만 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 에드먼턴 vs 캘거리,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제한 경쟁 캠페인
 - 에드먼턴과 캘거리는 각각 알버타주의 주도과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 중
 - 시정부의 법안 검토는 아직 없지만, 민간·비영리 단체 주도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를 경쟁하는 캠페인 ‘The Last Straw’ 개최



[그림 1] 에드먼턴과 캘거리의 빨대 줄이기 캠페인 홍보 배너

자료: <http://laststrawcalgary.ca/challenge-yeg-vs-yyc/>

- ‘The Last Straw’ 캠페인 개요
 - 캘거리를 근거지로 하는 비영리단체 ‘Plastic-Free YYC’와 에드먼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Waste Free Edmonton’ 주도로 개최
 - 대회명은 ‘Chllenge - YEG vs YYC’로, YEG와 YYC는 각각 에드먼턴과 캘거리의 공항코드를 의미
 - 7월 14일 하루 동안 두 도시 관내 모든 식음료 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하지 않는 캠페인
 -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식음료 업장 수와 참여 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두 도시 간의 경쟁을 유도



[그림 2] 에드먼턴 시내 커피숍에서 판매 중인 금속 빨대

– 규제에 따른 고려사항

- 대체 빨대 가격이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식음료협회장은 환경보호 움직임에는 동의하지만, 범칙금 부과와 대체 빨대의 공급에 따르는 사업장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
 - 한 종이 빨대 공급업체는 가까운 시일에 예년 공급량의 10배인 4백만 개의 주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금속·종이 등으로 제작한 빨대에는 여전히 위생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을 여러 매체에서 지적하고 있음
- 빨대가 꼭 필요한 장애인 소비자의 요구도 살필 필요
 - 신경근 관련 질환자는 빨아들이는 활동 근육의 문제로 빨대가 꼭 필요하지만, 빨대 금지의 큰 흐름에 묻혀 작은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음
 - 장애인 협회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에게는 해당 법안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https://www.huffingtonpost.ca/2018/04/19/canada-ban-plastic-straws-trudeau_a_23415665/

<https://www.ctvnews.ca/mobile/canada/optional-straws-at-restaurants-part-of-vancouver-s-plastic-reduction-plan-1.3871650>

<http://dailyhive.com/calgary/straw-free-calgary-2018-restaurants-plastic-free-yyc>

<https://globalnews.ca/news/4332240/edmonton-coffee-shop-plastic-straw-ban/>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paper-straw-business-booming-edmonton-1.4748455>

<https://thewolf.ca/news/4328849/there-are-straws-that-are-less-harmful-to-the-environment-they-just-cost-more-alberta-distributor/>

<https://www.ctvnews.ca/lifestyle/anti-straw-movement-should-consider-people-with-disabilities-advocates-say-1.3898714>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지진 발생 동시에 재해본부 설치…대책 신속 수립”

일본 오사카市 / 환경·안전

- 일본 오사카市는 지난 6월 18일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하자 곧바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기관이 신속히 재해대책을 수립·실행함. 또한, 지진으로 학교 담장이 무너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모든 학교 담장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위험한 담장의 철거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피해 상황에 빠르게 대처

- 개요

- 오사카시에 지난 6월 18일 7시 58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하자, 시정부는 즉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같은 날 12시에 1차 대책회의를 개최
 - 당일 17시와 17시 30분에 2차, 3차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을 재해대책경제본부로 이관해 산하 기관별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 각 기관의 대응

- 도시정비국은 건축물 위험도를 확인하고 위험주택의 응급 수리를 실행
 - 곧바로 건축물의 응급 위험도 판정을 시작해 6월 24일 조사를 종료
 - 5,612건을 조사한 결과 위험 13건과 요주의 235건을 발견하고, 반파·반소 피해를 본 주택을 응급 수리
- 위기관리실은 지진으로 주거공간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방수 시트를 배포하고, 지진 피해 재해증명서를 접수
- 재정국은 세금 감면 등으로 지진 피해자를 지원
 - 지진으로 고정자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감면
 - 주택 등에 일정 이상의 손해를 입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신체적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개인시민세·부민세를 감면
- 건강국은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적인 상담이나 의료기관 소개 등을 제공하는 ‘마음의 고민 전화상담’(こころの悩み電話相談)을 운영
- 경제전략국은 지진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외국인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재해 관련 정보를 전송
- 복지국은 장애인·노인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경감

- ‘재해 시 발달장애인 지원’ 리플릿을 배포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재해복구비 보조
- 대상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 개호보험료의 감면·징수유예·연체금 감면 등의 지원 제공
- 시민국은 재해 의연금금을 모금

－ 특별 조치

-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든 학교 수영장 담장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참사 발생
-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사무국에서 시립학교 담장의 안전을 확인
 - 지진 발생 당일 46곳의 초등학교를 조사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된 학교는 즉시 출입금지 조치
 - 이후 시정부는 담장이 건축기준법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고, 부적합 판정된 담장은 철거나 보강을 검토
- 아동청소년국도 모든 소관시설의 콘크리트 블록 담장 설치 상황을 조사하고 보육료 감면 상담도 시행
- 시정부는 콘크리트 블록 담장의 철거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
 - 도로에 인접한 높이 80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담장 등의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며, 늦어도 7월 중에는 보조금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

<http://www.city.osaka.lg.jp/kikikanrishitsu/page/0000439030.html>

<http://www.city.osaka.lg.jp/zaisei/page/0000439421.html>

<http://www.city.osaka.lg.jp/kyoiku/page/0000439826.html>

<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page/0000440127.html>

<https://osaka-info.jp/page/news-earthquake-osaka>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도시교통

올 9~12월 중 무인 전기택시 시민 대상 서비스

프랑스 리옹市 / 도시교통

- 2016년부터 시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량을 시범 운행하고 있는 프랑스 리옹市는 프랑스의 자율주행차량 개발 업체 나브야(Navya)사와 대중교통 사업자 키올리스(Keolis)사와 협력해 올 9~12월 안에 시민을 대상으로 무인 전기택시 서비스의 실전 운행에 들어갈 예정
- 배경
 - 리옹시는 2016년 신시가지 콩플뤼앙스(Confluence)에서 주로 관광객이나 인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인차량의 단거리 테스트 주행을 시작
 - 그 외에 각종 시설부지 내 등에서 50여 대의 무인차량을 실전 운행 중이고, 현재까지 19만여 명의 탑승객을 수송하며 축적된 데이터로 수정·보완 시행
 - 올 9~12월에 실제 택시시장에 무인택시 오토놈 캡(AUTONM CAB)을 출시할 예정
 - 무인택시 제작사인 나브야는 2015년 프랑스 전기공사 핵발전소 시설 내 무인 순환차량 도입을 시작으로 프랑스·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무인차량을 운행 중
 - “2050년경에는 전 세계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게 됩니다. 도심 이동수단의 다양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크리스토프 사뻐, 나브야 대표



[그림 1] 주행 중인 오토놈 캡의 외관

- 주요 내용

- 오토놈 캡은 운전자가 없는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 택시이며, 100% 전기로 운행
 - 평균 시속 50km, 최대시속 90km로 주행하고, 길이는 4.6m로 한 번에 6명까지 수송할 수 있음
- 차량의 완전한 독립성, 안전성, 실효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장치 탑재
 - 6개의 카메라와 10개의 장애물 감지 센서, 4개의 레이더를 장착했고, 2개의 위성 안테나로 실시간 위치 파악
 - 대당 가격은 35만 유로(4억 5천만 원)
- 프랑스 철도공사 SNCF의 자회사이자 대중교통 사업자인 키올리스는 나브야사의 오토놈 캡을 리옹시에 도입해 올 연말부터 실전 운행에 들어갈 예정
- 올 9~12월 중으로 실제 택시 시장에 오토놈 캡 무인택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
- 프랑스 정부는 2019년부터 프랑스 전역에 무인주행차량 운행을 허가할 방침

- 의의

- 100% 전기차량이라는 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개선 효과 기대
- 철저히 정해진 규정 속도와 교통 법규에 따라 움직이므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 기대

<https://www.keolis.com/>

<https://navya.tech/autonom/cab/>

http://navya.tech/wp-content/uploads/2018/02/DP-CAB-Navya-2018_27fev.pdf

<https://fr.wikipedia.org/wiki/Navya>

http://www.lepoint.fr/automobile/innovations/voiture-autonome-feu-vert-pour-l-experimentation-en-france-14-05-2018-2218279_652.php#xtmc=voiture-autonome&xtnp=1&xtr=10

http://www.lepoint.fr/automobile/innovations/voiture-autonome-feu-vert-pour-l-experimentation-en-france-14-05-2018-2218279_652.php#xtmc=voiture-autonome&xtnp=1&xtr=10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